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기업과 함께 이뤄가는
건강한 성장



2021
APRIL

•
Vol.219

cover story

기업의 지속 성장 견인하는 튼튼한 성장 파트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기조가 만연하고,
그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로
한 발 더 빠르게 '디지털',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변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Change)'에서 글자 하나를 바꿀 때, '기회(Chance)'가 된다고 합니다.
삼정KPMG는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변화를 주도하며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발굴해 가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06 Team Story**
K-SOX TFT
- 08 Client+**
바이브컴퍼니
- 10 Market Reader**
M&A로 본 에너지 산업:
코로나19의 영향과
새로운 경쟁 시대의 도래
- 12 Expert's Advice**
거세지는 무역전쟁,
우리 기업의 대처법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KPMG Story**
나와 다른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 16 인재양성소**
Onboarding Buddy 제도,
Buddy 만나 삼성인으로 적응 완료!
- 18 삼성별그램**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20 Theme Interview**
'세계 여성의 날', #Choose to Challenge!
"나는 _____ 하겠습니다!"
- 22 心 Care**
번아웃, 내면의 연료를 채우자
- 24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
경제성장세는?
- 26 행복한 삼정인**
일가양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 28 Samjong News**
'삼정KPMG 아카데미' 4월 런칭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올해 국내 20대 기업 리더들의 신년사에 등장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ESG'이다. 이제 ESG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번 호에서는 ESG가 기업에게 왜 중요한지, 성공적인 ESG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ESG,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인 ESG는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이다. 재무제표가 기업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면, ESG는 비재무적 정보를 통해 기업의 건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진단한다. 즉,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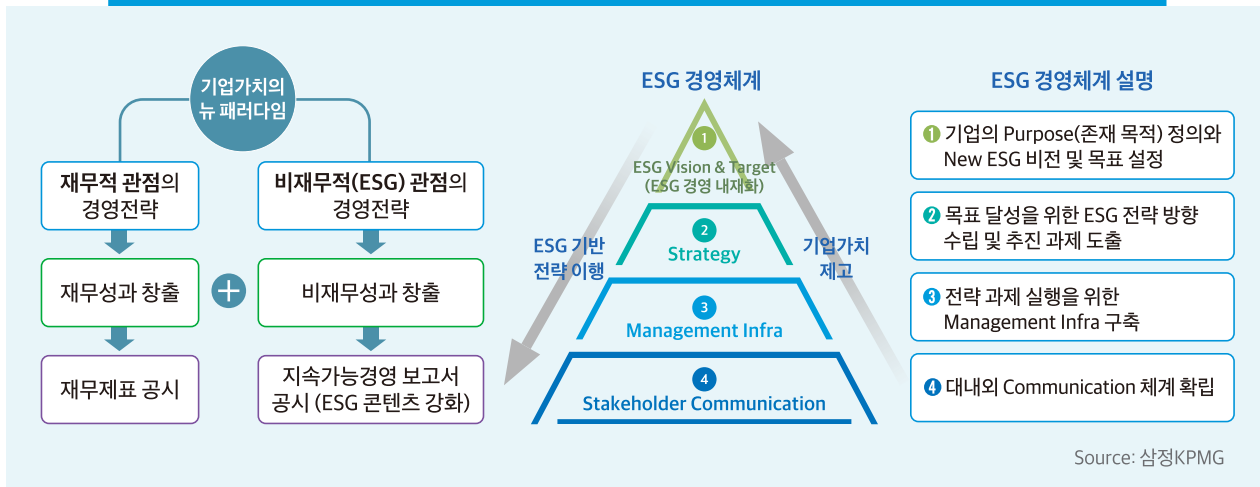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고객, 사회, 정부 등은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이미 ESG가 미흡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운영기금의 50%를 ESG 기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디스(Moody's) 등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기존의 재무적 정보 외에 기업의 ESG 역량을 신용등급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급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ESG 기반 공급망 관리(ESG-Based SCM)'를 확대하고 있다.

ESG 관련 정부 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까지 코스피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유럽 의회는 기업의 ESG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EU 내 활동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앞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대내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 ESG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수요가 몰리고, 투자가 확대되며,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등이 개선되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따르면 ESG 점수가 높은 기업(상위 20%)과 낮은 기업(하위 20%)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2014~2017년까지 약 1~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약 5배 이상의 차이까지

재무적, 비재무적(ESG) 성과가 연계된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과 ESG 경영체계



Source: 삼정KPMG

벌어지며 ESG 활동이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 증대에 더욱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정보공시 대응

ESG는 두 가지 경영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ESG 성과를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과 비재무적 경영 활동을 함께 전개해야만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ESG 경영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ESG 경영전략의 개념은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실행 체계 등을 구축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ESG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ESG 비전 수립부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방안까지 ESG 경영체계를 갖추고 단계별 액

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ESG 정보공시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ESG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핵심 ESG 요소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때 ESG 경영전략 수립과 병행하는 것이 ESG 정보공시를 준비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이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면, 기존 보고서 내용 중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리스크가 충분히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어떠한 전략과 감독 체계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빠른 대응을 통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을 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ESG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략컨설팅 리더 · 이동석 전무 Tel. 02-2112-7954 / E-mail. dongseo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02-2112-7469 / E-mail. doobeenyim@kr.kpmg.com

업계 최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K-SOX TFT

삼정KPMG는 2017년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TFT(Korea Sarbanes-Oxley Act, K-SOX TFT)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K-SOX TFT를 소개한다.

중견·중소 상장사, 경영환경 및 조직구조 등 고려한 내부통제 구축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시스템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모범규준이 적용됐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는 2022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기법(안)’을 제정 중이다.

중견·중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구조, 인력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삼정KPMG K-SOX TFT는 오는 4월 15일 웨비나(Webinar)를 통해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Big4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1위 최다 경험과 노하우로 시장 선도해

삼정KPMG K-SOX TFT는 내부통제자문과 감사전문가, IT 및 산업 전문가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국내 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Big4 회계법인 중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및 자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1위, 미국 증시 상장 한국기업 US-SOX 감사 1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 상장기업 감사나 미국 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CMG(Capital Market Group)를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수행실적으로 입증된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2024년부터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영향분석에 대한 추가 서비스도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시장 역시 선도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도 위상 떨칠 것

앞으로도 K-SOX TFT는 전문 용역 수행과 함께 보유한 전문 지식 및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No.1 구축 자문사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K-SOX TFT 주요 서비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 (개별/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로드맵 자문



체크리스트 개발 및
평가보고서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도입
안정화 지원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 및
양식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삼정KPMG 아카데미) 제공



기업에 업무 진행 단계별로
대면 교육 제공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전진단 서비스

INTRODUCE

• ‘K-SOX TFT’를 소개한다면?

신장훈 부대표 (리더)

jshin@
kr.kpmg.com



“업계 최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 조직으로 기업의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삼정KPMG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준비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김유경 전무 (부 리더)

youyoungkim@
kr.kpmg.com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감독은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의 3대 축으로 이뤄지며,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정 현 상무

heonjung@
kr.kpmg.com



“K-SOX TFT 안에는 산업별 내부통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각 산업 내 세부 업종별 표준통제 Tool Kit과 Best Practice를 활용하여 고객사에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합니다.”

국내 최초·최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 기업 **바이브컴퍼니**

바이브컴퍼니(VAIV company)는 국내 최고의 포털 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 제공업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 지식기술 및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CRM 및 기타 솔루션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과 이식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년의 업력으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보유 'AA'등급 받으며 기술력 인정받아

바이브컴퍼니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전문기업이다. 2000년 다음소프트로 설립됐으며, 2020년 8월 14일 사명을 바이브컴퍼니로 변경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의 핵심기술 인력은 총 23명(박사 및 박사후 16명)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인력이 83%이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력은 96%로 구성됐다. 핵심기술 인력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부분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이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전공 분야의 지식 융합을 통해 바이브컴퍼니의 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의 사업화 및 고도화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트윈과 같이 공공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며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브컴퍼니는 그동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술제품으로 기업과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20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326억 건의 비정형 데이터 및 지식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술특례상장(2020.10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내 유일 AI 플랫폼 소피아 구축

바이브컴퍼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인 'SOFIA(소피아)'를 구축했다. 소피아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 유연하고 높은 확장성을 기반으로 IT, 건설, 금융,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내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하며 인공지능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소피아는 ▲Somtrend(빅데이터 분석) ▲AI Solver(문제해결 솔루션) ▲AI Report(인공지능 리포트) ▲AI Agent(비대면 전문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바이브컴퍼니 사옥



1. 코스닥 상장 기념 사진 2. '2019 일하기 좋은 SW 전문기업 시상식'에서 경영진 리더십 부문 최우수상 수상 3. 고용노동부 사보에 실린 바이브컴퍼니 직원들의 모습



기업, 언론,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활용, 확장해 나갈 것

현재 바이브컴퍼니는 자사 기술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25개 업종의 538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공공, 언론 등에서 바이브컴퍼니의 주요 기술제품을 활용하는 건수가 2,639건(2017~2020)에 달한다. 향후 소피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 사업 확대, 고객 맞춤형 IPA(지능형 자동화) 시장 진출, 비대면 사업 강화 등 기존 사업 확장과 신사업을 통해 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는 세종, 부산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LH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및 광양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글로벌 사업 파트너를 확보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브컴퍼니는 AI 기술이 일상이 되는 AI Everywhere 시대가 도래하고 그 중심에는 바이브컴퍼니가 있다는 신념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해왔다. 앞으로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춰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소피아플랫폼

AI Analytics

AI Analytics

Sometrend

Biz

Pro

Review+

Data+

Report

Trend

AI Solver

탐지 및 분류

예측

발굴 및 탐색

시뮬레이션

AI Report

트렌드, 브랜드, 주가, 지역관광, 축제, 뷰티 분석 보고서, 월간여행, 여행코스 추천 보고서

AI Agent

AI ChatBot

Smart! HELPER

M&A로 본 에너지 산업: 코로나19의 영향과 새로운 경쟁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는 에너지 디지털화, 탈탄소화, 분산화의 메가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 리더들의 선제적인 M&A로 귀결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M&A 시장의 최근 트렌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산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다. 현재 에너지 산업의 큰 흐름은 디지털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운송에서의 전기차 확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에너지원으로서 전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에너지의 전기화와 디지털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강화된 국제공조는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 시대,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생존 조건으로 급부상하면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도

시의 록다운(lockdown)을 경험하면서 중앙 집중형 전원의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특정 지역에 소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소비효율이 높고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업계 리더들이 선제적으로 M&A를 진행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분기 전 세계 에너지 산업 M&A 거래액은 146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된 3분기 1,485억 달러로 급반등했다. 직전 분기 대비 10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새롭게 떠오른 에너지 5대 권력의 M&A 동향

최근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①슈퍼메이저, ②산유 국영기업 외에도 ③대형 유틸리티 기업, ④ICT 빅테크, ⑤재무적투자자가 새로운 에너지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 산업의 헤게모니를 놓고 5대 권력이 새롭게 경쟁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리더들의 최근 M&A 동향을 보면 에너지원별로는 가스 및 신재생에 투자가 활발하다. 먼저, 2020년 3분기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자 슈퍼메이저인 코노코필립스는 셰일가스 업체인 콘초를 인수했고, 쉘브론도 셰일가스 업체 노블에너지를

인수했다. 동기간 재무적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드 천연가스 업체 도미니언에너지를 발 빠르게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슈퍼메이저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ICT 빅테크, 재무적투자자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슈퍼메이저 중에서는 특히 BP와 토탈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이며, EDF와 이온, 이베르드롤라 등 다수의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 또한 앞다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인수하고 있다. ICT 빅테크의 선택도 신재생에너지이다. 현재 M&A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의 형태로 투자하고 있으나, 점차 M&A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재무적투자자들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밸류체인별로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M&A가 집중되고 있다. 슈퍼메이저들은 오일샌드 같은 전통유전을 과감하게 팔고, 비전통 셰일자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다.

거래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슈퍼메이저가 인수자로 나선 상위 4건이 업스트림에서 발생했다. 반면 M&A를 통해 다운스트림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산유국영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8건의 매수거래 중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관련 거래는 5건에 달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더들은 가스, 신재생,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의 선제적인 M&A를 통해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크게 보면 최근 에너지 산업의 M&A 방향성은 비교적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각 기업이 인수대상으로 선택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및 밸류체인이 다르다. 기업별로 추구하는 목표와 환경이 다르기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각 기업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로운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에너지산업 M&A 리더 김광석 부대표

Tel. 02-2112-0723

E-mail. kwangseok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에너지 산업 주체별 M&A 트렌드

• 에너지원은 신재생과 가스, 밸류체인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M&A가 활발히 진행 중

		슈퍼메이저	산유 국영기업	유틸리티	빅테크	재무적투자자
밸류체인	업스트림	●	◐	○	○	◐
	미드스트림	◐	○	◐	○	◐
	다운스트림	◐	◐	◐	◐	◐
에너지원	석탄	○	○	○	○	○
	석유	◐	◐	○	○	○
	가스	●	◐	◐	○	◐
	신재생	◐	◐	●	●	◐

○ ◐ ● M&A 수요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거세지는 무역전쟁, 우리 기업의 대처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유럽연합(EU), 인도-중국 무역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불을 지폈다. 거세지는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삼성KPMG의 관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현재 국제 통상환경은 어떠한가요?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캐나다 등 총 12개국과 추진 중이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방적으로 이탈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막을 열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은 세계적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을 지렛대 삼아 무역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류는 한국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전쟁터와 같은 통상환경은 국내 기업들에게 분명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2 국내 기업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기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업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

하는 모니터링은 공급망관리(SCM) 관점을 기반으로 국제무역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SCM 라인에 있는 모든 국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분쟁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도구 삼아 펼치는 전쟁이며, 관세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세목으로 수입 물품별로 부과되므로 원재료·중간재·완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SCM 라인에 있는 한 국가에서 통상이슈가 발생하면, 이러한 이슈는 필연적으로 SCM 라인에 있는 다른 국가, 나아가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각 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해외 소재 현지 법인들의 통상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며, 모니터링 범위에는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고 없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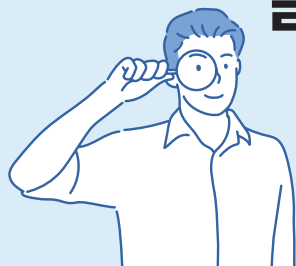
Tax6 김태주 상무

Tel. 02-2112-7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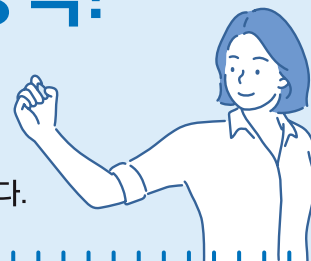
E-mail. taejoo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월 8일 게재된 한경 CFO Insight '거세지는 무역전쟁, 우리 기업의 대처법'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보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환경 기술과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용어를 준비해봤다.



클린테크 (Clean Tech)

현재까지 환경기술이 오염이 발생한 뒤에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 데 반해, 클린테크는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둔다.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 혹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정보기술(IT)도 클린테크 분야에 포함된다. 최근 탈석탄, 탈탄소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나타나면서 클린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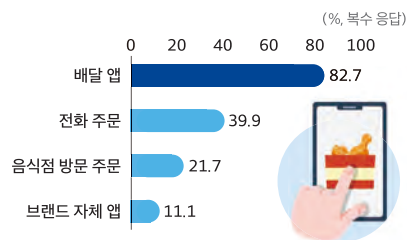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추천하고, 비용 정보와 호출,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다. 사용자의 이동수단 형태의 변화를 유도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독일, 일본 등 자동차 강국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도입에 뛰어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춘 서비스를 주는 '통합 교통 서비스'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출처: 단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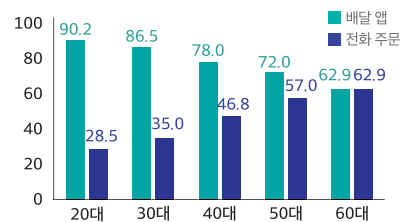
외식의 내식(內食)화 ... 소비자 82.7%가 배달 앱 이용

코로나19 이후 '외식의 내식(內食)화'가 이뤄지고 있다. 배달 외식 시 주문 방법에 대한 조사(2020년 10월) 결과, 응답자의 82.7%가 배달 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배달 앱 이용률이 90.2%로 10명 중 9명이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배달 앱 이용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달 외식 시 주문 방법◆



연령대별 주문 방법 이용 현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KPMG Story

나와 다른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인재양성소

Onboarding Buddy 제도,
Buddy 만나 삼정인으로 적응 완료!

삼정별그림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Theme Interview

‘세계 여성의 날’, #Choose to Challenge!
“나는 _____ 하겠습니다!”

心 Care

번아웃, 내면의 연료를 채우자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
경제성장세는?

행복한 삼정인

일가양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Samjong News

‘삼정KPMG 아카데미’ 4월 런칭 외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나와 다른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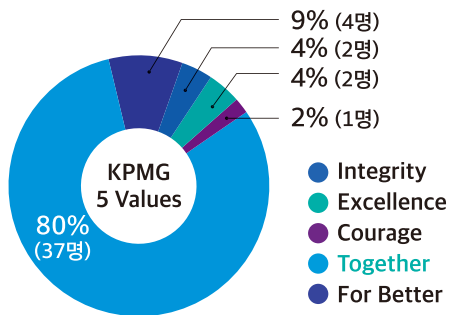
‘KPMG Story’에서는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KPMG Value에 대해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인들이 본인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가치에 집중하는지 들어봤다.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Together!’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함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Value가 가장 필요할까? 삼정인들은 본인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가치로 ‘Together’를 선정했다. 총 48명이 참여한 이벤트에서 Together가 80%, 이어서 For Better 9%, Integrity 4%, Excellence 4%, Courage 2%를 기록했다.



 <p>한은미 Manager (Q&RM-DPP)</p>	 <p>유건백 Associate (CM1)</p>	 <p>표은송 S.Analyst (Deal Advisory4)</p>	 <p>김용철 Analyst (Deal Advisory6)</p>	 <p>이건우 S.Consultant (Digital)</p>
<p>“다양성을 포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재화가 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Excellence’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p>	<p>“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토양에서 조성돼요. 저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를 위해 ‘For Better’ 가치를 뽑았어요.”</p>	<p>“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For Better’의 가치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이를 통해 사회와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p>	<p>“저는 ‘Together’를 택했어요. 서로 다른 가치, 문화,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요.”</p>	<p>“다양한 관점의 생각이 모여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Courage’ 가치를 뽑았어요.”</p>

Onboarding Buddy 제도, Buddy 만나 삼정인으로 적응 완료!

| 어려움 없이 삼정인 모드 On

정수진 지난해 12월에 입사한 저는 버디 덕분에 법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입사 교육도 비대면으로 받아 낯선 상황 속에서 입사 당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긴장하고 헤맸는데, 버디를 만나 낯선 환경에 수월하게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황복 개인적으로 신규 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기본적인이라 누군가에게는 귀찮을 수 있는 것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온보딩 버디 제도는 이를 해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본인 역량을 더 빠르게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회사, 업무, 행정영역에서 23가지 멘토링 주제를 정리했고 각각에 대해 최대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수진 특히,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신 부분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맡아야 할 업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소개해 주시니, 막막했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황복 버디 활동을 통해 저 역시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동안 일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잠시나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며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스킬 향상에도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턴트로, 함께 성장해요!

정수진 제 버디인 이황복 컨설턴트님에게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전 직장인 방송국보다 더 경직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우려는 친절하고 편하게 해주신

Digital
신규 입사자 정수진 Consultant &
Buddy 이황복 S.Consultant



정수진 Consultant

이황복 S.Consultant

버디를 통해 생각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에 일하게 되어 기뻐요!

이황복 오히려 저는 정수진 컨설턴트가 우리 본부에 입사한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걸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몇 번의 대화와 질의응답을 통해 매우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컨설팅을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목표를 이루신 것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만족하며 다닐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수진 버디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노력해서 늘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삼성KPMG는 신규 입사자가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Onboarding Buddy 제도(온보딩 버디 제도)를 운영 중이다. Buddy(버디)는 신규 입사자에게 입사 후 2개월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입사자는 버디를 통해 어떤 도움을 얻었을까? 온보딩 버디 제도에 참여한 버디와 신규 입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삼성KPMG에서 첫 시작을 즐겁게!

신도은 올해 1월에 입사한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하지만, 온보딩 버디 제도로 만난 버디가 너무 잘 챙겨주신 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사 이곳 저곳을 잘 소개해주시고 마주친 본부원들과도 인사시켜 주시고, 본부원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덕분에 업무를 진행할 때 어렵지 않게 본부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안미진 버디 역할을 맡았을 때, 본부에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바로 윤호정 S.Senior님인데요, 많은 본부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실 땐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 역시도 많은 도움을 얻었죠.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버디로서 신규 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신규 입사자에게 어떤 점이 필요할지, 입사 초반을 생각하며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을 떠올리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바쁜 시기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2개월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신도은 정말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본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성심껏 도움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2개월간 경험한 온보딩 버디 제도를 통해 수평적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는 본부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이러한 조직문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로

신도은 우리 버디는 밝고 쾌활하신 성격 덕분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이시죠. 버디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저 도 언젠가는 버디님처럼 신규 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버디

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빠르게 성장해가겠습니다.

안미진 사실 제가 버디로서 역할을 했지만, 신도은 Associate는 2년 차로 제 새로운 동기예요. 중국에서 공부하셔서 중국어에도 능통하시고, 타 법인에서 IT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업무에 있어 늘 적극적입니다. 우리 팀에 오게 된 걸 매우 환영하며 2개월간의 버디 활동은 끝났지만, 궁금하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신도은 Associate

안미진 Associate

IT Audit
신규 입사자 신도은 Associate & Buddy 안미진 Associate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코로나 일상, 삼정인들은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코로나 없는 일상, 삼정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삼정별그림'을 통해 알아봤다.



축구 동호회로 그라운드를 누비고파

이동주 S.Analyst (Deal Advisory1)



매주 토요일, 함께 즐겨하던 축구 동호회 활동을 다시 하고 싶어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본부원을 비롯해 타 본부원들과도 교류하며 운동하는 것이 참 즐거웠는데, 거의 1년째 활동을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특히, 4대 회계법인 축구 대회 전통 강자로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 때문에 기약 없이 운동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리움이 커지네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토요일 오전을 활기차게 깨울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삼정사랑나눔 봉사로 온정 베풀기

전형진 S.Senior (Tax2)



코로나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건 삼정사랑나눔 봉사활동입니다! 법인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느껴, 주변 친구들까지 어렵게 설득해 봉사에 참여하려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죠. 그리고 벌써 봉사활동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혼코노로 사우팅 하며 스트레스 날리기

신진호 S.Analyst (Deal Advisory4)

새벽 야근 후, 집에 가기 전에 즐기는 혼코노* 노래방에서 아무 눈치 없이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도무지 코인 노래방을 가질 못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장 소리 지르러 갈 거예요!

* 혼코노: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가다의 준말



코로나
극복!



스쿠버다이빙 하러 바다로 점프

설찬수 S.Senior (IGH)



2019년 여름, 여자친구의 권유로 필리핀에서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코로나 사태 직전 중남미 여행 기간 중 여러 나라의 다이빙 포인트를 다녔어요. 바닷속에 폭 잠겨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 놓은 비행기가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환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열린 진정되어 삼정인 모두 원하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없이 한강 러닝을

문여명 Associate (ICE1)



마스크 없이 한강에서 러닝을 하고 싶어요. 강변을 따라서 흠냄새도 맡고 강에서 나는 물냄새도 맡으면서 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출근길에 집 밖에 나와서 이상하게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들면 '아 맞다 마스크' 하며 다시 집에 들어가기 일쑤인데 그런 걱정 없이 한강까지 따릉이를 타고 가서 강바람을 맞으며 러닝하고, 편의점에 들러 포카리 한잔하고 오면 힘든 시즌의 기억이 조금이나마 희미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럽 여행을!

홍지수 Consultant (MCS1)

교환학생 때 방문한 유럽에 다시 가고 싶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가장 생각나는 곳은 아름다운 청정구역 스위스가 아닐까 해요.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마테호른을 봤던 기억과 이젤발트라는 예쁜 호숫가 마을에서 친구와 함께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생애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스위스에 가면 이번에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세계 여성의 날’, #Choose to Challenge!

나는 하겠습니다!

삼정KPMG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해 ‘#Choose to Challenge!’ 캠페인을 진행했다.
 ‘Choose to Challenge’는 변화를 위해 편견과 불평등에 도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정인들은 Inclusion & Diversity를 위해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삼정인들은 어떤 다짐을 했는지, 들어보자.



“나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불평등을 당연시하지 않겠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언가 잘못된 게 없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편견을 흘려보낸다면 남의 일이었던 그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갑시다.

박소영 Consultant (SCG)



“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신념을 존중하겠습니다.”

일로 만난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언제나 의견 대립은 존재하는데요, 나의 경험과 신념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 역시 좀 더 예의 바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성별뿐만 아니라 경험과 신념의 차이도 다양성으로 포용해 주는 모습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송혜선 부장 (PPC)**

“나는 성찰을 통해 편견을 타파하겠습니다.”

타인 혹은 기타 개체에 대한 편견은 본인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현재의 사고방식 또는 행동이 편견에서 비롯되진 않았는지,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하여 Inclusion & Diversity 실천을 저해하진 않는지 성찰을 통해 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범준 직원 (Q&RM-DPP)



“나는 KPMG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에게 업무 과정의 공정성과 편견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보상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유정 Director (Tax4)**



“나는 다음의 가치를 즐기겠습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을 넘어 즐기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각자의 가치가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호윤 Manager (Tax6)



번아웃, 내면의 연료를 채우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유난히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혹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호에서는 현대인들의 질병, 번아웃에 대해 살펴보고 이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들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번아웃 신드롬(burnout syndrome, 이하 '번아웃)'. 사실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온 질병 개념이 아니라, 최근 수년 사이에 자주 쓰기 시작한 말이다. 특히 업무와 관련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한 후 극도의 피로감,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나 번아웃 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번아웃 증상이 구체적으로 뭘까? 요즘 피곤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는데 나에게도 번아웃이 찾아온 걸까?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번아웃 증상은 무엇일까?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다. 요즘은 반드시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 스펙 쌓기, 가사 육아 등 성취를 위해 에너지를 쏟은 후 찾아오는 무력감을 번아웃이라고 통용하는 추세다.

번아웃의 핵심적 세 가지 증상은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무 효능감 저하'다. 정서적 소진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완전히 지쳐있고, 업무로 하루 종일 긴장하는 등 일 때문에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냉소적 태도 증상은 맡은 일에 관심이 줄고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며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직무 효능감 저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기여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번아웃 증상 자체로도 문제지만, 번아웃을 겪으면 업무 외의 일상에서도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모든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등 개인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번아웃 증상을 그대로 방치



해두면 임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우울, 불안,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번아웃을 느끼기 쉬운 요인들

심리학자 및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은 '번아웃은 개인의 정신건강적 취약함이 아니라, 직무, 조직 그리고 사회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필자도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업무 특성 및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번아웃에 더 취약한 경우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 개선은 논외로 하고 개인 차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번아웃에 취약한 업무 요인이 있다.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전문직종 그리고 고객과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대표적인 번아웃 위험군이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다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나에게만 번아웃이 온 것 같죠?'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일에 과몰입하는 경우, 완벽주의적 성격,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워하는 비주장적 성향의 사람들은 번아웃 증상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요즘 의욕이 잘 나지 않고 모든 것에 회의적인 기분이 든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번아웃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번아웃으로 힘들다'고 말하면 '불안증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번아웃만 드러내며 번아웃 자체에만 치중하기도 한다. 그러나 번아웃이 촉발점이 되어 치료 받아야 할 수준의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기에 자세한 진단 및 평가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를 권한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정신적으로 장기간 집중된 후에 번아웃이 찾아온다. 장기간의 업무 후에는 반드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문직종의 경우 몸을 쓰는 것에 비해 머리를 과도하게 많이 써서 생긴 불균형이 대다수다. 주중 일정 시간 산책, 퇴근길 걷기 등 의도적인 몸 움직임을 통해 머리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일 외에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거운지 찾아보자.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뚜렷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탐색해보고, 업무가 과도하게 많지 않은 기간에는 하루 중에 '일 이외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가지기를 권한다. 아무리 짜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수건을 계속 짜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럴 때는 수건을 적셔야 한다. 나에게 '물과 연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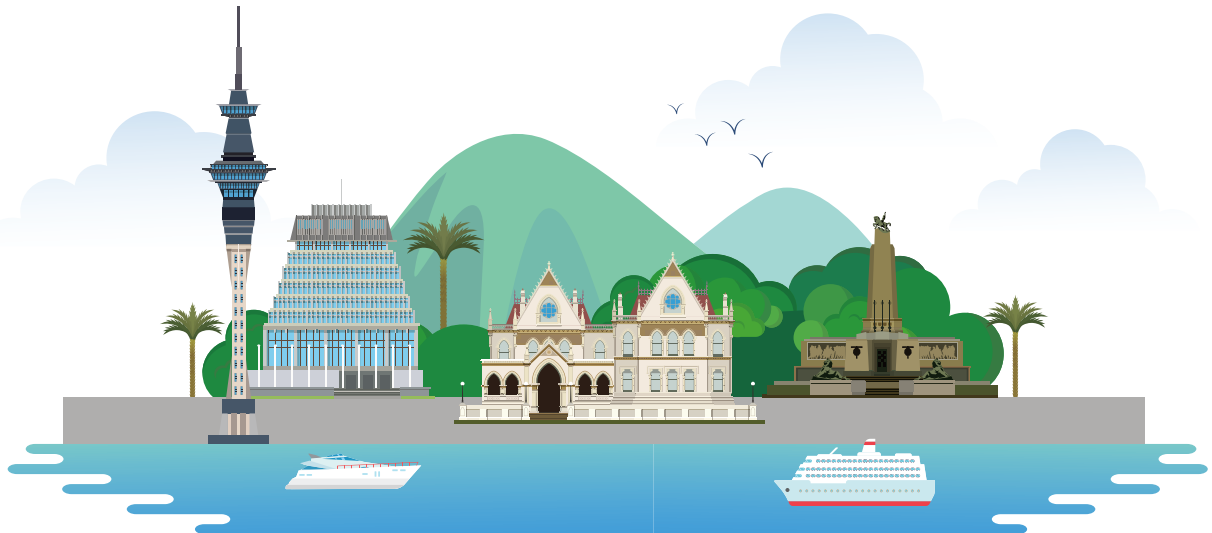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 경제성장세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활발히 협력을 이뤄가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례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 신규 공동연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복을 이뤄가고 있는 뉴질랜드를 김현진 S.Manager를 통해 살펴본다.

글. KPMG 뉴질랜드 Korea Desk 김현진 S.Manager
E-mail. jeankim1@kpmg.co.nz / Tel. +64 9 367 5887



록다운으로 산업 경제활동 위축됐으나 회복세 전망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과 국민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했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여 오클랜드가 단기간 봉쇄된 바 있지만, 빠른 초기 대응으로 현재 추가 지역사회 감염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코로나 대응에 따른 산업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뉴질랜드는 정부의 강력한 록다운(lockdown)과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고, 2020년 3분기 실업률은 전 분기 4.0% 대비 급격히 상승하며 5.3%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도 외국인의 입국은 통제 중이며, 이는 최소한 2021년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국경 봉쇄로 인해 관광산업과 유학생 관련 교육산업에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정부 임금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며, 경제 회복에는 비교적 낙관적이다. 뉴질랜드 재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7월에서 2020년 6월, 한 해 동안 GDP가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나 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여 실업률과 가계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및 국경 개방 시기가 변수가 될 수 있으나, 2021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진행, 내수 경기 활성화 기대

뉴질랜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20년 1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78억 미국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인 빅 뉴질랜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철도, 도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 분야에 많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져 뉴질랜드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낮은 금리 및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 및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4분기의 신규주택 건축 승인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타운하우스 등 다가구 주택 승인율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주거 형태의 변화를 방증했다. 특히 오클랜드 중심가에 고층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증가했으며,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이 신축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틈새 기술과 한국 ICT 및 로봇 기술 융합 기대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종합 기술 소유에 있어서는 약한 편이나 틈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발사체 기업 로켓 랩(Rocket Lab)은 생산 기지와 발사장을 뉴질랜드에 두고 있으며, 웨타 디지털(Weta Digital)이나 소울 머신(Soul Machine)과 같은 뉴질랜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틈새 기술이 한국의 제조 및 종합 기술과 융합할 경우,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강국인 뉴질랜드에서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늘고 있어, 한국의 ICT 및 로봇 기술 등과의 융합 가능성이 기대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뉴질랜드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안전하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이다. 특히 규제가 적고 투명한 정부(세계은행 2020 기업환경 평가 순위 1위, OECD 2020 국가 청렴도 순위 1위)로 유명하며, 기업 설립 소요 시간이 짧고 절차 또한 간소하다. 다만, 뉴질랜드 진출 초기에 호주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뉴질랜드 법은 호주 법과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뉴질랜드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KPMG 뉴질랜드의 이전가격팀 시니어 매니지먼트 멤버들과 오클랜드 사무소에서, 맨 좌측이 김현진 S.Manager

뉴질랜드 Korea Desk

뉴질랜드 Korea Desk는 2019년에 신설된 후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회계 감사, 세무/이전가격, 재무자문, 경영&리스크 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업계 선도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KPMG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부터 시너지를 얻어, Korea Desk 설립 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행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다. 뉴질랜드 Big4 중 유일한 공식 Korea Desk로서 뉴질랜드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뉴질랜드 Korea Desk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Korea Desk
김현진 S.Manager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 자녀 초등학교 입학 이벤트 진행 일가양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애 앞장서고 있다. 그 노력 중 일환으로 0~5세까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혜택을 지원받은 삼정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본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육아비 부담은 DOWN, 감사한 마음은 UP!

정재욱 S.Manager (Deal Advisory7)

법인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은 지 어느덧 2번째 해가 되었네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이라도 나은 어린이집을 보내려 하니 역시나 비용이 부담되었죠. 그런데 법인의 보육비 지원 혜택은 이러한 금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다 보니, 확실히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제 가족까지 챙겨준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엄마, 아빠 삼정인들 모두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을 이뤄가면 좋겠네요.



멋지고 든든한 남편과 아빠로!

김민성 대리 (파란행복)

저는 세 살배기, 세쌍둥이의 아빠입니다. 초미숙아로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큰 고생을 한 우리 아가들이 아직도 작디작기만 한 것 같은데 벌써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어요. 3명이 동시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어 가계의 부담도 꽤 큰데 회사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정KPMG의 좋은 복지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멋지고 든든한 남편이 되었답니다. 삼정의 아빠, 엄마를 위한 보육비 지원을 늘 응원하며, 앞으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삼정인으로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 이벤트



아빠 회사에서 선물해준 소중한 인라인스케이트!

손준호 Director (MCS1)

늘 아기로 남아있을 것 같았던 우리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가장 즐거워야 할 7살을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도 거의 못 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늘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인라인스케이트 입학 선물은 마치 맞춤 선물처럼 특별했어요. 가지고 싶었던 거라고 기뻐하며 타지도 못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뒤통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제 제법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아빠 회사에서 준 거라며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합니다.

매일 밤 함께하는 입학 선물

조원빈 S.Manager (Tax4)

요즘 그리스 로마신화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윤하에게 무려 15권의 책 선물이 도착했어요. 입학 선물은 생각지도 못해서 저에게도 제 딸에게도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밤 자기 전 입학 선물로 받은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답니다.

윤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준 법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에게 큰 응원이 된 특별한 선물

이승헌 부장 (총무팀)

두려움과 설렘을 갖고 시작하는 사회로의 첫발에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은 아이에게 큰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뵈지 못한 아빠 회사의 회장님이 자신의 입학 소식을 알고 축하와 격려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게 순수한 아이에게는 놀라움과 함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으쓱함으로 다가온 듯해요. 편지에서처럼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해야겠다는,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한 번 더 가지고요. 아빠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특별한 입학 선물 감사합니다.

Samjong News

‘삼정KPMG 아카데미’ 4월 런칭

차별화된 ‘지식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아젠다’ 제시



1 홈페이지



2 모바일 APP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1 '삼정KPMG 아카데미' 홈페이지, 2 모바일 APP 설치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삼정KPMG가 2021년 4월, 온라인 지식 플랫폼 ‘삼정 KPMG 아카데미(<https://kpmgacademy.hunet.co.kr/Home>)’를 런칭한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지식 플랫폼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를 온라인 교육 형태로 제공한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회계실무자의 업무 수행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사이트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슈브리핑’과 ‘비즈니스리포트’에서 분야별, 산업별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삼정KPMG가 진행한 주요 세미나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세미나 다시보기’ 세션도 마련했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에 오픈한 ‘삼정KPMG 아카데미’를 통해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문화 정착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한눈에 속! '삼정KPMG 아카데미' 살펴보기

'삼정KPMG 아카데미'란? 급변하는 시장 속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오픈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나요?

1 '정규 교육 과정'
정규 교육 과정으로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선임된 감사 및 감사위원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의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안내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新)외감법에 따른 회계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위한 운영전략 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섹션에서는 산업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삼정KPMG 주요 서비스를 안내한다.

3 '비즈니스 리포트'
비즈니스 리포트 섹션에서는 삼정KPMG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을 정리해 이용자들이 필요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4 '세미나 다시보기'
세미나 다시보기 섹션에서는 기존에 웨비나로 진행된 삼정KPMG 세미나 중 다시보기를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가 있나요? '삼정KPMG 아카데미'는 회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학습과 콘텐츠 열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규 교육 과정과 세미나 콘텐츠는 학습 이력이 남아, 오는 4월 말부터 교육 수강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 '삼정KPMG 아카데미' 관련 문의: BD&Markets 박혜경 이사 (hyekyungpark@kr.kpmg.com)

Samjong News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급변하는 환경 속 위기를 기회로! 'Vision 2025' 위한 개편 단행

삼정KPMG가 4월 1일자로 법인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Vision 2025'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본부 간 업무 영역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객 및 서비스 범위 확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Tax Function 본부명을 Tax1~6본부로 변경했다. 기존 Domestic Tax1 본부는 Tax1본부로, Domestic Tax2본부는 Tax2본부로, Global Tax본부는 Tax3본부로, DT&FS Tax본부는 Tax4본부로, ATO본부는 Tax5본부로 변경하고, 이전가격 및 관세 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TP본부와 관세본부를 통합해

본부명을 Tax6본부로 변경했다.

또한, 기업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Deal Advisory7본부를 신설했다. Deal Advisory7본부를 이끌어 갈 본부장으로는 손호승 전무를 임명했다.

미래 산업 변화로 인한 기업 Digital Transforma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igital Tech본부를 신설했다. Digital Tech 본부장으로는 김원택 전무가 임명됐다.

한편, 전략 컨설팅 업무의 시너지 증대를 위해 기존 SCG1 본부와 SCG2본부를 SCG본부로 통합했으며, 통합된 SCG 본부의 본부장으로는 이동석 전무가 임명됐다.

신임 본부장



Deal Advisory7
본부장
손호승 전무



Digital Tech
본부장
김원택 전무



SCG
본부장
이동석 전무

외부 ESG 세미나 연사 참여로 ESG 전문 지식 전해

삼정KPMG ESG 전문가들이 외부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해 ESG 전문 지식 제공에 힘쓰고 있다. 3월 11일 'ESG 글로벌 공시 세미나'에서 김정남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이동석 전무는 3월 17일 '제17회 동아 모닝포럼'에 참석해, "선진국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ESG에 서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거나 고객사와 거래가 끊기는 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 출처: 전경련 홈페이지

콜드트레인팩토리 및 인공지능연구원 MOU 체결

삼성KPMG가 콜드트레인팩토리, 인공지능연구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3월 18일, 콜드트레인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확산과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사는 스마트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플랫폼 구축,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모델 개발, 개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수행,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지난 3월 24일에는 인공지능연구원과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 공급 협력 등 AI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삼성KPMG가 보유한 Ignite 솔루션과 인공지능연구원이 개발한 AI RPA 솔루션 모듈을 활용해 금융·보험산업, 공공·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AI 모듈 조합을 기반으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1. 삼성KPMG 컨설팅부문 리더 정대길 대표(오른쪽)와 인공지능연구원 김영환 대표(왼쪽) 2. 삼성KPMG Deal Advisory4 김광석 부대표(왼쪽)와 콜드트레인팩토리 서용식 대표(오른쪽)

NOTICE

K-SOX 웨비나 개최

- **주제**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일시** 2021년 4월 15일(목) 14:00 ~ 17:00
-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링크 당일 신청자 개별 전달)
- **신청**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문의** IA 김영재 연구원(02-2112-3305, ykim91@kr.kpmg.com)



A Culture for Trust and Growth

KPMG Values Refresh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우리의 새로운 5 Values는 우리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로 구성되어 있다.

Integrity

We do what is right.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다.

Excellence

We never stop learning and improving.

우리는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한다.

Courage

We think and act boldly.

우리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Together

We respect each other and draw strength from our differences.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으로부터 강점을 끌어낸다.

For Better

We do what matters.

우리는 사회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한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